

몽골 선거제도 개편과 2024 총선 전망

정동연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차 례

1. 몽골 선거제도 개편 현황과 기대효과
2. 2024 총선 주요 이슈
3. 총선 전망

주요 내용

- ▶ 몽골은 국회의 다양성 및 대표성에 대한 문제인식하에 지난해 대대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했으며, 오는 6월 28일(금) 새롭게 바뀐 제도하에서 제9대 총선이 실시됨.
 -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76석이던 국회의원 의석을 126석으로 확대하고,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혼합선거제를 도입했으며, 재외국민 투표 시행 및 여성 후보 확대를 위해 규정이 강화됨.
 - 이번 선거에서는 제도 개편의 성과 여부 및 지난 두 차례의 총선에서 초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주도해온 인민당이 집권을 연장할 수 있을지가 주요 이슈임.
- ▶ 이번 총선에서 인민당이 재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존의 초다수 의석 확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제도 개편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다당제 거버넌스 및 여성·청년 대표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인민당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 정당으로서 확립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국정운영을 통한 높은 인지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정치인·공직자가 연루된 부정부패, 청년실업, 높은 물가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가운데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가 관찰되었으며, 인민당이 초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과의 협의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입법 과정에 기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출마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이 39%에 달하며, 청년 후보 수가 증가하면서 소수정당 의석 및 여성·청년 의원의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보다 민주적인 정치문화 정착과 성평등, 부패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각 정당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포용성 증대를 위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안정적인 물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 간 정책기조에 큰 차이가 없어 선거 이후 기존 정책 방향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현 야당의 획득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정부기금 및 국유기업의 독립성 확보, 국유자산 민영화 등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음.

1. 몽골 선거제도 개편 현황과 기대효과

- [배경] 몽골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량과 책임 강화 차원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국민 의견 수렴 및 기존 선거제도 분석을 통해 국회의 다양성 및 대표성과 관련한 여러 문제인식을 확인함.¹⁾
 - 2023년 초 전국적으로 실시한 두 차례의 국민 참여 공론회에서 국회의 역량과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혼합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큰 지지를 받음.
 - 또한 기존 선거제도 및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군소정당의 국회진출 한계, △선거구별 대표성 불균형, △여성 및 청년 대표성 부족, △재외국민 투표 제한 등의 문제가 지적됨.
 - 인민당(Mongolian People's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을 제외한 소수정당은 역대 총선에서 대부분 5석 이하(6.6% 미만)의 의석을 차지해왔고(표 1 참고), 각 지역구의 유권자 수에 따라 투표가치가 과대 또는 과소 대표되는 불균등의 문제가 관찰되었음.
 - 최근 두 차례의 총선 결과 여성의원의 비율은 전체의 17%로 세계 평균(27%) 및 동아시아·태평양 평균(23%) 대비 낮으며, 35세 이하 유권자가 전체의 40%에 달하나 35세 미만 의원은 부재한 상황임.²⁾
 - 총 여덟 차례의 총선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선거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개편 내용 및 기대효과] 2023년 국회 의석수 확대 및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선거법과 선거구를 재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법제가 개편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 대표성 및 역량 향상과 다당제 거버넌스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헌법 내 선거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76석이던 국회의원 의석이 126석으로 확대되었고, 다수대표제에서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혼합선거제가 도입됨.³⁾
 - 지역구에서는 78석을 선출하며, 유권자가 해당 선거구에 책정된 대표자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고 총 득표 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블록투표제(Plurality block voting)를 채택하고 있음.⁴⁾
 - 48석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며,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득표율 4%(2개 정당 연합은 5%, 3개 이상 정당 연합은 7%) 이상을 획득해야 함.⁵⁾
 - 「국회의원 선거법」 수정안이 2023년 6월 채택되면서 재외국민 투표 및 (일부 유권자의) 사전투표 허용, 정당별 후보자 그룹의 성별 비율 요건이 강화됨.⁶⁾
 -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 지명 시 여성(또는 남성)의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남녀 후보를 교차로 기재하는 교호순번제(zipper system)를 도입함.

1) Selenge Enkhzorigt, 강현철(2023), 「2023년 몽골 헌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Issue Paper 23-02, p. 4, pp. 8-9, 한국법제연구원.

2) World Bank, Data(검색일: 2024. 6. 24.).

3) 몽골 「헌법」 제21조 제1항은 '국회는 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혼합선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78석은 지역구에서, 48석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고 규정함.

4) The Asia Foundation(2023), "ELECTIONS IN MONGOLIA(1992-2021)," p. 23.

5) "Parliamentary Elections 2024: Yet Another New Election System"(2024. 3. 12.), *Mongolia Focus*.

6) OSCE(2024), "MONGOLIA: PARLIAMENTARY ELECTIONS 28 June 2024-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pp. 4-5, p. 8.

- 이어 선거구를 기존 29개에서 13개로 통합하는 결의안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몽골의 지역발전 개념,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아이막(Aimag, 道)을 7개의 선거구로, 수도 울란바토르를 6개의 선거구로 재편함.⁷⁾
 - 울란바토르 6개 선거구에서는 총 24명, 아이막을 재편한 7개 선거구에서는 총 54명의 의원을 선출함.

2. 2024 총선 주요 이슈

가. 총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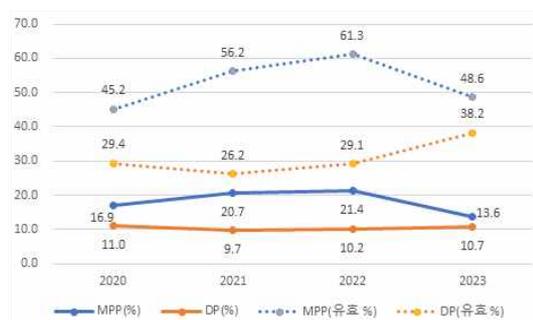
- 몽골의 제9대 총선이 6월 28일(금)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몽골 국민은 향후 4년간 입법부를 구성하고 내각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126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됨.
- 몽골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 형태인 이원집정부제로,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정을 총괄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업무를 관장함.
 - 입법부인 의회(The State Great Hural)는 단원제로 임기는 4년이며, 의회 다수당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함.
- 6월 초 출마 정당 및 후보를 확정하고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국회의원 수가 확대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자가 출마함.
 - 19개 정당 및 2개의 연합정당이 등록했고, 무소속을 포함해 총 1,336명이 후보로 출마하면서 예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후보가 참여함.

표 1. 몽골 역대 총선 결과 정당별 획득 의석수

구분	연도	인민당	민주당	기타정당	무소속
1대	1992	70	4	1	1
2대	1996	25	50	-	1
3대	2000	72	1	2	1
4대	2004	37	35	1	3
5대	2008	45	28	2	1
6대	2012	26	34	13	3
7대	2016	65	9	1	1
8대	2020	62	11	2	1

주: 총의석은 76석이며, 음영은 다수당을 의미함.
자료: The Asia Foundation(2023), "ELECTIONS IN MONGOLIA(1992-2021)."

그림 1. 인민당 및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변화



주: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유효%'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등 응답을 제외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도만을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Sant Maral(2024), Politbarometer.

7) "State Great Khural Elections 2024: 126 Members to be Elected by Mixed System"(2024. 5. 13.), *Montsame*.

나. 인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지율 하락 배경

■ 2020년 치러진 제8대 총선에서 인민당은 총투표의 44.9%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제1당이 되었으나, 2023년 인민당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상승하는 변화가 관찰됨.

- 인민당은 지금까지 치러진 8번의 총선에서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제1당으로 의회를 구성했고, 최근 두 차례의 총선에서는 총의석의 80%를 넘는 초다수당(super majority)으로 국정을 주도함(표 1 참고).
- Sant Maral 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정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16.9%였던 인민당의 지지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 21.4%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지난 4년간 가장 낮은 13.6%로 나타남(그림 1 참고).⁸⁾
 - 유효 지지율로 환산한 인민당의 지지도 역시 2022년 61.3%에서 2023년 48.6%로 하락함.
- 반면 전통적으로 인민당과 경쟁구도를 형성해온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2021년 9.7%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소폭 상승해 2023년에는 10.7%를 기록함.

■ 2016년 집권 이후 인민당의 국정운영은 △‘자원에 대한 의존도 감축 및 경제다각화’를 목표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교적 빠르게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몽골은 2010년대 후반부터 비광물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발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에는 몽골의 과거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향후 30년의 국가 발전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장기개발계획 ‘비전 2050’을 승인함.⁹⁾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4.6%의 역성장을 기록했던 몽골 경제는 2022년 5%, 2023년 7%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임.
 - 몽골 정부는 비전 2050의 이행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경검문소(교통 인프라), △에너지, △산업, △도시 및 농촌, △녹색성장, △국가생산성 6개 영역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담은 ‘신부흥정책’을 2021년 12월 발표하여 몽골의 경제회복을 지원함.
- 몽골은 외환위기로 2017년 IMF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에 따른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나, 거시경제 개혁조치에 따라 재정 안정성이 향상되고, 정부부채, 투자, 외환보유고 등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됨.¹⁰⁾
 - 재정수지가 2023년 흑자로 전환했고, GDP 대비 정부부채·대외채무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명목GDP 및 1인당 GDP가 상승한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정체되었던 수출도 빠르게 늘어남.

8) Sant Maral 재단은 울란바토르에 기반을 둔 비영리 여론조사기관으로, 1996년부터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몽골의 정치환경 및 유권자 여론에 대한 조사인 ‘Politbarometer’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의 여론조사 결과는 일부만 공개되었고,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전체 결과는 선거 이후에 공개될 예정임.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검색일: 2024. 6. 19.).

9) 비전 2050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자급자족, 수출 증대, 산업구조 다각화 달성을 목표로 9개의 핵심목표와 50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 녹색성장,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을 강조함.

10) Bertelsmann Stiftung, BTI 2024 Country Report – Mongolia.

표 2. 몽골의 주요거시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 증가율(%)	1.5	5.6	7.8	5.6	-4.6	1.6	5.0	7.0
명목GDP(십억 달러)	11.2	11.5	13.2	14.2	13.3	15.3	17.2	19.9
1인당 GDP(달러)	3,575.1	3,612.7	4,078.2	4,309.1	3,965.1	4,482.9	4,959.1	5,668.4*
수입(십억 달러)	3.3	4.3	5.9	6.1	5.3	6.9	8.7	9.3
수출(십억 달러)	4.9	6.2	7.0	7.6	7.6	9.2	12.5	15.2
순해외투자유입 (% GDP)	-37.3	12.6	14.6	16.3	12.7	13.5	14.2	6.9*
GDP 대비 정부부채	78.7	86.9	76.5	66.8	83.4	67.7	64.5	48.0
총대외채무(십억 달러)	24.6	28.0	29.8	31.6	32.4	34.3	34.2	36.1*
총대외채무(% GDP)	220.1	243.6	226.2	222.2	243.1	224.7	199.5	181.5
환율(투그릭/USD)	2,140.3	2,439.8	2,472.5	2,663.5	2,813.2	2,849.3	3,140.5	3,465.8
외환보유고(십억 달러)	1.2	2.8	2.8	3.2	4.1	3.8	3.0	3.4

주: *는 추정치임.

자료: S&P Global Connect;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6. 20.).

표 3. 현 정부의 성과 및 실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23년)

순위	성과		실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1	부패 대응	17.1	부정부패	28.7
2	광산업	8.9	물가상승	17.6
3	건강보진	4.7	국정운영	13.6
4	교육	3.4	법 집행	9.0
5	경제성장	2.3	생활수준 저하	7.4

자료: Sant Maral(2023), "Politbarometer."

그림 2. 몽골의 부패인식지수(CPI) 추이



주: 점수는 0~100점으로 평가되며, 0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고 100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을 의미함. 2016년까지는 전체 국가 수가 170개국 내외에서 변동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총 180개국 중에서 몽골의 순위를 의미함.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검색일: 2024. 6. 20.).

■ 그러나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지속되고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도 해당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것이 지지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2022년 몽골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몽골의 부정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74%로, 몽골 국민 전반적으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¹¹⁾
 -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가'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라고 응답함(표 3 참고).
-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부패스캔들은 2022년 10월 공개된 석탄 밀수 사건으로, 국영 석탄기업 Erdenes-Tavan Tolgoi JSC의 경영진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밝혀짐.¹²⁾

11)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IRI)(2022), "Public Opinion Poll: Residents of Mongolia March | April 2022."

- 밀수 주도자들은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석탄을 중국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야당인 HUN당(HUN Party)은 잠재적 세입 손실이 약 40조 몽골투그릭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있음.
- L.Oyun-Erdene 몽골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고, 2023~24년을 ‘부패 척결의 해’로 선언하는 등 부패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으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¹³⁾
- 몽골의 CPI 점수는 8년 전인 2016년 38점에서 2023년 33점으로 하락하면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의 순위도 87위에서 121위로 낮아짐(그림 2 참고).

■ 또한 높은 실업률과 물가, 삶의 질(빈곤)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

- 2024년 설문조사 결과 실업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년대비 확대되면서 가장 큰 이슈로 지적됨(표 4 참고).
 - 전체 실업률이 지난 2년간 2.4%p 감소해 5.4%를 기록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12.9%에 달하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음(표 5 참고).
- 2022년 15.2%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몽골의 물가상승률은 이듬해 10.4%, 2024년 들어(5개월 평균) 6.7%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과 밀접한 식품과 의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됨(그림 3 참고).
 - 식품 및 음료(주류 제외) 가격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18.6%, 15.8% 인상되고, 의류 및 신발 가격이 각각 15.4%, 10.9% 오르면서 전체 물가상승폭을 뛰어넘었음.
 - 2024년 들어서도 식품 및 음료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7.5%), 교육 서비스(16.8%) 물가 상승이 두드러짐.
-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빈곤선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2016년 29.6%에서 2020년 27.8%로 빈곤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표 5 참고).

표 4. 몽골의 가장 큰 사회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순위	2023		2024	
	항목	비율	항목	비율
1	물가상승	18.2	실업	24.2
2	실업	16.0	물가상승	16.2
3	삶의 질	14.7	교육	9.7
4	부패	10.1	경제/제조업	9.0
5	경제	8.5	삶의 질/빈곤	8.8

자료: Sant Maral(2023, 2024), Politbarometer.

그림 3. 몽골의 물가상승률 추이(전체 및 주요 품목)



자료: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검색일: 2024. 6. 21.).

12) "Coal smuggling trains the Mongolian public's eye on systemic corruption"(2023. 4. 17.), *East Asia Forum*

13) "What's in Mongolia's New Anti-Corruption Strategy?"(2023. 6. 8.), *The Diplomat*.

표 5. 몽골의 실업률 및 빈곤율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실업률(%)	10	8.8	7.8	10	7	7.8	6.7	5.4
- 15~24세 실업률	25.1	22.7	20.4	25.3	17.9	12.2	12.9	12.9
- 25~64세 실업률	8.5	7.5	6.5	8.6	5.9	7.4	6.4	4.8
빈곤율(%)								
- 국가빈곤선 이하 기준	29.6	-	28.4	-	27.8	-	-	-
- 하루 2.15달러 이하*	0.7	-	0.7	-	-	-	0.2	-
- 하루 3.65달러 이하*	8.5	-	6.9	-	-	-	2.4	-
- 하루 6.85달러 이하*	41.9	-	38.3	-	-	-	22.1	-

주: * 2017 PPP 기준임.

자료: 실업률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빈곤율 World Bank, DataBank(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6. 21.).

3. 총선 전망

가. 주요 정당의 공약

- 각 정당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포용성 증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면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안정적인 물가,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 간 경제, 산업, 대외관계 등 부문별 정책 추진 방향에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1 참고).
- [정부의 역할] 인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은 ‘정부 개입 최소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면서 정부지출 축소, 공무원 감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인민당 역시 축소 방침임.
- [물가] 국가 예산 및 통화 정책의 적절한 운용을 통한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목표로 함.
- [국가 기금]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하고,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방침임.
 - 민주당은 정치권에서 독립된 전문가가 기금 운용을 담당해야 하고, 기금을 예산적자 및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HUN당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출’을 중시함.
 - 국민연합(National Coalition)은 국가안보에 중요하지 않은 부문의 국유자산을 민영화하고, 그 수입을 국부펀드로 편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함.
- [세금] 세제혜택을 통해 (1) 국가적인 우선 육성 산업, (2) 스타트업, (3)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 교육훈련을 장려하고자 함.
- [일자리] 각 정당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 마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자 함.
 - 민주당은 고용보험, 산업재해 제도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HUN당은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고, 두 정당 모두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통한 근무 유연성 개선을 강조함.

- [광업] 주요 정당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성 증대, △광물 개발 및 거래에 있어 투명성 제고, △전략광물 개발, △환경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광산 개발, △광물 가공 및 수출 시장 확대를 강조함.
- [대외협력 관계] 러시아 및 중국과의 균형적인 협력 관계 유지, 제3의 이웃 국가와 협력 확대 및 심화,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확대 등이 각 정당의 공통된 공약임.
 - 인민당은 제3의 이웃 국가와의 무역, 투자, 경제협력 확대에서 나아가 한국, 중국,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제시함.

■ 그 외 건강·보건 서비스 개선, 축산농가·저소득층·공공재해 피해자·고령층 지원, 부패문제 대응, 복지를 통한 사회적 보호 강화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건강·보건]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암·심혈관 전문병원 설립(인민당, HUN당), 의료인력 훈련 강화 및 국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해외 치료비용 지원 확대(인민당, 국민연합)를 공약으로 제시함.
 - 민주당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 및 사망률 감축,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 감축, 전자의료 시스템 도입을 약속함.
- [교육] 주요 정당은 보육 서비스 확대(인민당, 민주당), 영어교육 확대 및 수준 향상(인민당, 국민연합), 교육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인민당, 민주당), 교외 거주자가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민주당, 국민연합), 디지털을 통한 교육 확대(민주당, 국민연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부패 해결] 불법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국제협력 확대, 광업기업 및 공무원의 책임 강화, 부패 전문 법원 설립,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마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정당이 제시하고 있음.

나. 전망

■ 선거제도가 여전히 신규 후보 및 정당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번 선거를 통해 몽골의 다당제 거버넌스, 청년·여성 대표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대비 확대된 선거구, 비교적 짧은 선거운동 기간 등은 전국적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적 자원 및 선거자금 규모가 더 큰 기존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법제 개편의 영향으로 소수정당 의석, 여성 및 청년 의원은 기존 대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가 인민당 22%, 민주당 17%, HUN당 10%, 국민연합 6%로, 두 주요 정당 외에 제3당의 지지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8대 총선에서 1석을 확보했던 HUN당은 이번 선거에서 3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¹⁴⁾
 - 각 당의 후보자 분석 결과, 여성후보 비율이 인민당은 30.2%, 국민연합은 46%이며, 전체 1,336명의

14) "Mongolia's Political Parties Showcase Candidates for the 2024 Parliamentary Election"(2024. 5. 22.), *The Diplomat*.
"Corruption Issues Loom Large as Mongolia Prepares to Vote"(2024. 6. 7.), *The Diplomat*.

후보자 중 519명이 여성(38.8%)으로 기존 대비 더 많은 여성 후보가 출마했으며, 청년층 후보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됨.¹⁵⁾

- 2021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성 정당 외 제3의 새로운 후보를 원하는, 해외 거주 몽골인 및 청년층의 지지로 ‘올바른 유권자 연합’의 D.Enkhbat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20.3%라는 두 번째로 높은 득표를 기록하면서, 전통적인 인민당과 민주당 간 대결구도 변화 가능성이 이미 제기된 바 있음.¹⁶⁾
- 새롭고 다양한 배경의 인사 발굴이 장기적으로 더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성평등 개선 및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민당이 재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존의 초다수 의석 확보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인민당 의석이 감소할 경우 다른 정당과의 협의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입법 과정에 기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여전히 인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으며, 주요 정당으로서 확립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그동안의 국정운영 경험을 통한 높은 인지도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소수정당 의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민당 외 정당의 지지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과 같은 초다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인민당은 제7, 8대 국회에서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몽골은 국회 제적 인원의 3/4이 동의할 경우 헌법 수정이 가능함.¹⁷⁾
 - 다만 몽골 선거제도의 특성상 다수대표제인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획득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아 전망에 한계가 있음.

■ 주요 정당의 정책기조에 큰 차이가 없어 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 방향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으나, 현 야당의 획득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정부기금 및 국유기업의 독립성 확보, 국유자산 민영화 등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음.

- 교육기금, 보건 및 사회보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국가적으로 조성한 특수목적 자금이 정치인 및 공직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기금 운영의 적법성,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에 야당에서 더 강화된 공약을 제시함.
 - 민주당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인 기금 운용과 목적 외 사용 금지, HUN당은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함.
-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광산 개발 및 그로 인한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며, HUN당은 국영광산회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방지방안 마련, 민주당은 광산 수입의 분배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임.

15) “МАН: Нэр дэвшигчдийн материалаа СЕХ-нд хүлээлгэнэглэ” (2024. 5. 25.), Mongolian People’s Party; OSCE(2024), “Mongolia, Parliamentary Elections, 28 June 2024: Interim Report,” p. 7.

16) ‘올바른 유권자 연합’은 HUN당, 사회민주당, 정의당의 연합정당임. 정동연(2021), 「동향세미나 몽골 대선 결과와 향후 전망」, Emerics.

17) The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 인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고, 최근 한국과 몽골 간 협력 논의가 활발한 대외통상협력 및 광업 부문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이 유사해, 선거 결과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개시했으며,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희소금속 관련 협력을 본격화함.
 - 양국은 2023년 2월 L.Oyun-Erdene 몽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EPA 협상 추진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2024년 5월 제2차 협상을 진행함.¹⁸⁾
 - 우리 정부는 2023년 ‘한·미·몽골 핵심광물 3자 협의체’와 한·몽 양국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몽골 내에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우리 기업도 리튬, 텅스텐 등의 개발을 목표로 몽골 광산개발·투자사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¹⁹⁾
- 인민당은 제3의 이웃 국가와 무역·투자·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등 일부 국가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대외 경제·통상협력 공약을 제시했으며, 주요 야당도 제3 이웃 국가와 협력을 심화한다는 기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
- 주요 정당은 희토류 등의 전략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광물자원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기술 도입, 수출시장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업 분야 공동연구, 고도 선광 및 제련 기술 이전 등과 방향성이 일치함.
 - 그러나 채굴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면허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 광산 폐쇄 및 복원에 있어서 국제적·환경적 기준 마련과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대몽골 협력 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임. **KIEP**

18)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 기대」(2023. 12. 18), 『연합뉴스』;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2차 공식협상…시장개방·공급망 협의」(2024. 5. 21), 『연합뉴스』.

19) 「지질자원연구원, 몽골에 희소금속 협력센터 만든다」(2023. 10. 18), 『연합뉴스』; 「금양, 몽골 법인 주식 523억원어치 취득…지분율 40%」(2023. 6. 8), 『연합인포맥스』; 「STX, 몽골에서 리튬·텅스텐 희소금속 개발 본격화」(2023. 11. 27), 『이데일리』.

부록 표 1. 주요 정당의 부문별 주요 공약

구분	인민당	민주당	HUN당	국민연합
기초	신부흥정책 -지역개발개혁	인간 개발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 정책	튼튼한 경제, 사람을 위한 투자	부유한 국가, 부유한 개인
정부의 역할	-	정부 개입 최소화와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정부 개입 최소화와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지출·비효율 지양, 효율적인 정부
경제 전반	- 예산 지출을 GDP 의 25% 수준으로 축소 - 안정적인 물가상승 률 유지, 투그릭의 구매력 보존 - 용도별 기금 운용: [국부기금] 천연자원 관리, [미래유산기금] 미래를 위한 저축, [개발기금] 주요 프 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 향후 4년간 최소 6%의 안정적인 경 제성장률 달성 - 정부 일반예산 20% 감축, 금리 인하를 위한 법제 마련 - 물가상승률 한 자릿 수 이내로 안정 - 정치에서 독립된 전 문 팀의 국부기금 운용	- 일관된 투자·민관협 력·예산 정책 추진 - 인플레이션 한 자릿 수 유지 - 현실적인 예산수입 및 지출 계획, 엄격 한 적자 관리를 통 한 부채 문제 개선 - 자유와 기회 확대, 대출 할인 제공, 우 호적인 비즈니스 환 경 조성 등 민간 부 문 지원 강화	- 예산지출 확대 지양 - 국가안보에 중요하 지 않은 부문의 국 유자산 민영화 - 협력적·혁신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즈니 스 육성 - 경쟁력 있는 금융환 경 조성을 위한 제 도적 기반 마련, 우 수한 국제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은행· 금융·보험 부문 강화
조세	- 지역 경제개발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 기 업에 법인세 인하 - 스타트업에 대한 세 금 감면(3년간) - 국제기준에 맞춰 부 가가치세법 개정 - 직원 훈련비용 세금 면제제도 마련	-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 산업에 대한 세율 인하 - 부가가치세법 개정 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 교육 관련 지출은 세금공제	- 기업친화적인 조세 환경 조성 - 영세·중소 기업, 스 타트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 선할 수 있는 부가 가치세 및 환급제도 도입	-
일자리	- 안정적인 고용 환경 마련 - 창업기업,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지 식·기술 제공을 위 한 생태계 조성 - 신생 기업가, 혁신 가, 개발자를 위한 우선 자금 조달	- 실업률 5% 이하 유 지를 위한 고용정책 시행, 고용보험·산 업재해제도 마련 - 원격·시간제 등 다 양한 근무 형태와 성과 평가 도입 - 교육 기능 강화, 자 격 인증을 위한 국 가 시스템 구축	-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 련(재교육 및 보육 지원) - 근무유연성 개선, 시급 규정 마련을 통한 청년 근로조건 개선	- 지역 및 산업 특성 에 맞춘 취업 지원 - 사회보험제도 개선 과 민관협력하에 고 용촉진 추진
광업	- 친환경·첨단 광산 프로젝트를 통해 투 자·수출입 확대 - 모든 광물은 거래소 를 통해 공개 거래, 채굴 허가 공개 및 불법 허가 단속 - 리튬, 실리콘, 희토 류 매장지 개발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 치 및 수출 확대 -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복원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 광물 탐사 강화, 불 법적인 광업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 국제적인 표준에 부 합하는 광산 운영, 모니터링, 복원 및 폐쇄 기준 마련 - 천연자원으로 인한 부의 분배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 광물 고부가가치 가 공 인프라 확대, 수 출 중심 운영	- 채굴 수익으로 구성 된 기금을 통해 대 규모 개발 프로젝트 실행 - 국영 광산 회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방지방안 마련 - 광물의 가공을 늘리 고 수출시장을 확대 - 환경적, 경제적 기 준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광업 강화 -	- 혁신 및 첨단 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 해 장비 및 기술 도 입에 유리한 법적 환경 조성

<p>대외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 확대 -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한국·미국·일본 등과 무역·투자·경제협력 확대 - 한국·중국·유라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자유무역협정 체결 - 지역경제 통합에의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중국과 균형적인 관계 유지 - 제3의 이웃 국가와 전방위적 협력 관계 발전 - 접경지역에 면세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의 이웃 국가와 협력 확대·심화 - 지역통합 참여, 양자관계의 틀 내에서 투자 유치,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추진 - 일본, 한국, 유럽연합 국가로의 여행 편의 제고 - UN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확대 - 수출지향적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 - 대학과 연구기관은 국제교류와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출에 적극 협력 -
-------------	--	---	--	--

자료: “What do parties promise in their economic platforms?”(2024. 6. 19.), *pressreader*, “НЭГ ДОРООС Улс төрийн 19 нам, 2 эвслийн мөрийн хөтөлбөрийн харьцуулалт,”(2024. 6. 10.), *iToim*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6. 21.).